



## '대뉴욕지구 한인상공회의소'로 불러주세요

입력일자: 2006-03-14 (화)

뉴욕한인상공회의소(회장 이명석)는 지난 12일 뉴저지 포트리 힐튼호텔에서 제1차 임원회의를 갖고 단체 명칭을 '대뉴욕지구 한인상공회의소'(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GREATER NEW YORK)로 변경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칭 변경은 단체 활동을 뉴욕 뿐 아니라 뉴저지, 커네티컷 등 메트로폴리탄 지역으로 확대 하고 제한적인 회원 영입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일환이라는 게 상공회의소 측의 설명이다. 상공회의소는 또한 이날 회의에서 매분기별로 동포사회와 함께하는 행사를 열기로 하고 첫 번째로 오는 5월21일 퀸즈 금강산 연회장에서 제1차 한국상품 박람회를 개최기로 했다. 한국상품박람회는 한국 상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체들의 상품들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동포들의 모국 상품 애용을 유도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된다.

아울러 상공회의소는 이날 부회장단 8명과 사무국 임원 2명을 확정, 발표했다. 다음은 임원진 명단. 부회장단=성기범(대외/기획), 손인자(문화/사업), 송정훈(보험/행사), 양승걸(무역/경제), 이승원(인터넷/웹), 임승영(법률), 리처드 조(투자/부동산), 조현주(교육/여성) 사무국=사무차장 최영수, 웹디자이너 장용. <김노열 기자>